



공간, 사람, 스토리: 낙선재(樂善齋)와 황실 사람들

인문정보학과
박사과정
전가람

목차

1. 낙선재를 되찾기 위한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비(尹妃)의 투쟁
2. 영친왕 이은(李垕)과 이방자(李方子) 여사의 정략결혼
3. MIT 공대를 졸업한 수재 이구(李玖), 줄리아 멀록(JULIA MULLOCK)과 인연을 맺다
4. 덕혜옹주(德惠翁主), 낙선재에서 보낸 회한의 27년

황실 사람들과 이승만, 그리고 낙선재



순정효황후



영친왕 이은



이방자



이구와 줄리아몰록



덕혜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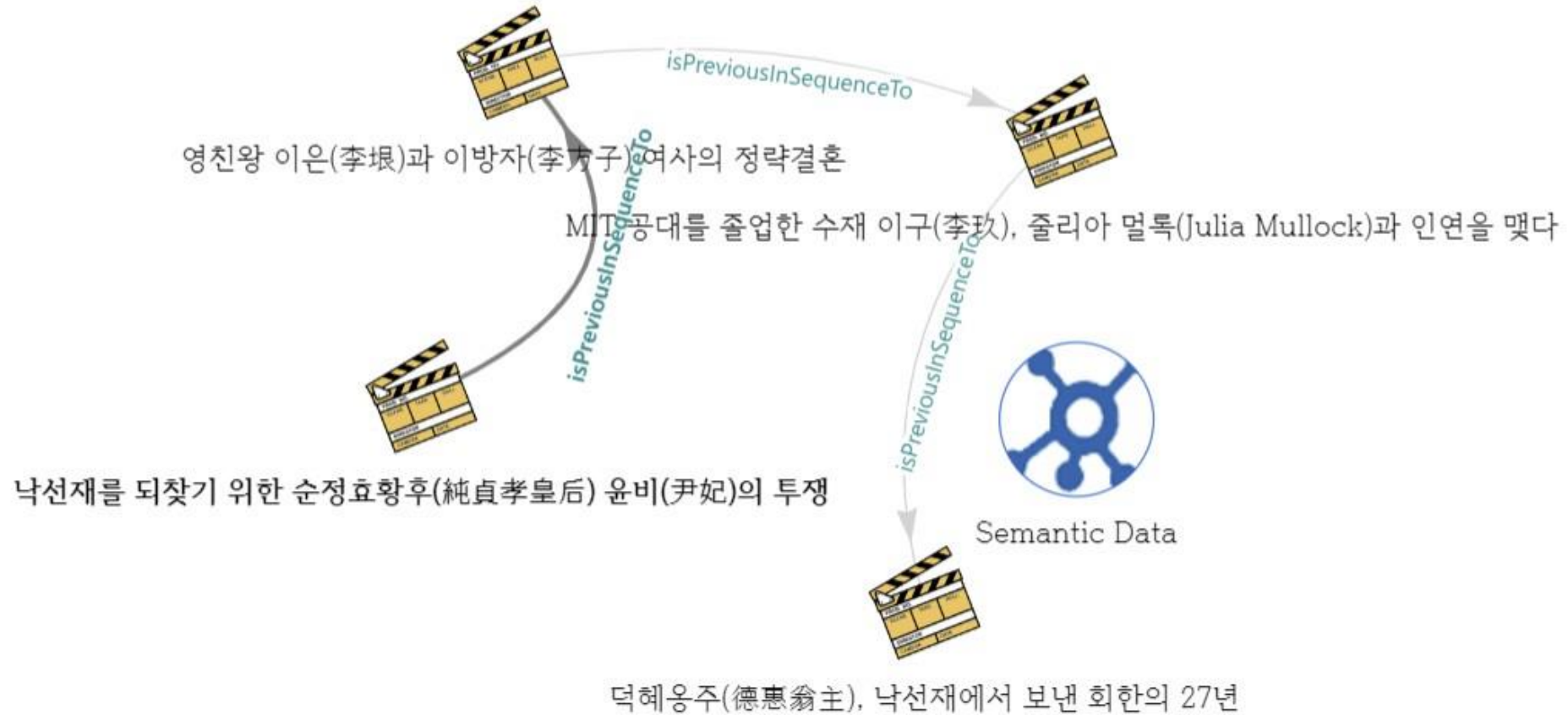


이승만



창덕궁 낙선재

STORY NETWORK GRAPH



낙선재를 되찾기 위한 순정효황후 (純貞孝皇后) 윤비(尹妃)의 투쟁



조선의 마지막 중전이자 순종황제의 비인 순정효황후 윤비는 12세에 황태자비가 되었고, 32세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등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이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될 때, 순정효황후는 병풍 뒤에서 어전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엿듣고 있다가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합방조약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자 치마 속에 옥새(玉璽)를 감추지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숙부 윤덕영(尹德榮)에게 강제로 빼앗겨 한일병합이 이루어졌고, 이후 순종의 지위가 이왕(李王)으로 격하되자 그녀도 이왕비(李王妃)가 되어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에서 머물렀다. 1926년 4월, 순종이 사망하자 대비(大妃)로 불리며 창덕궁 낙선재(樂善齋)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게 된다.

낙선재를 되찾기 위한 순정효황후 (純貞孝皇后) 윤비(尹妃)의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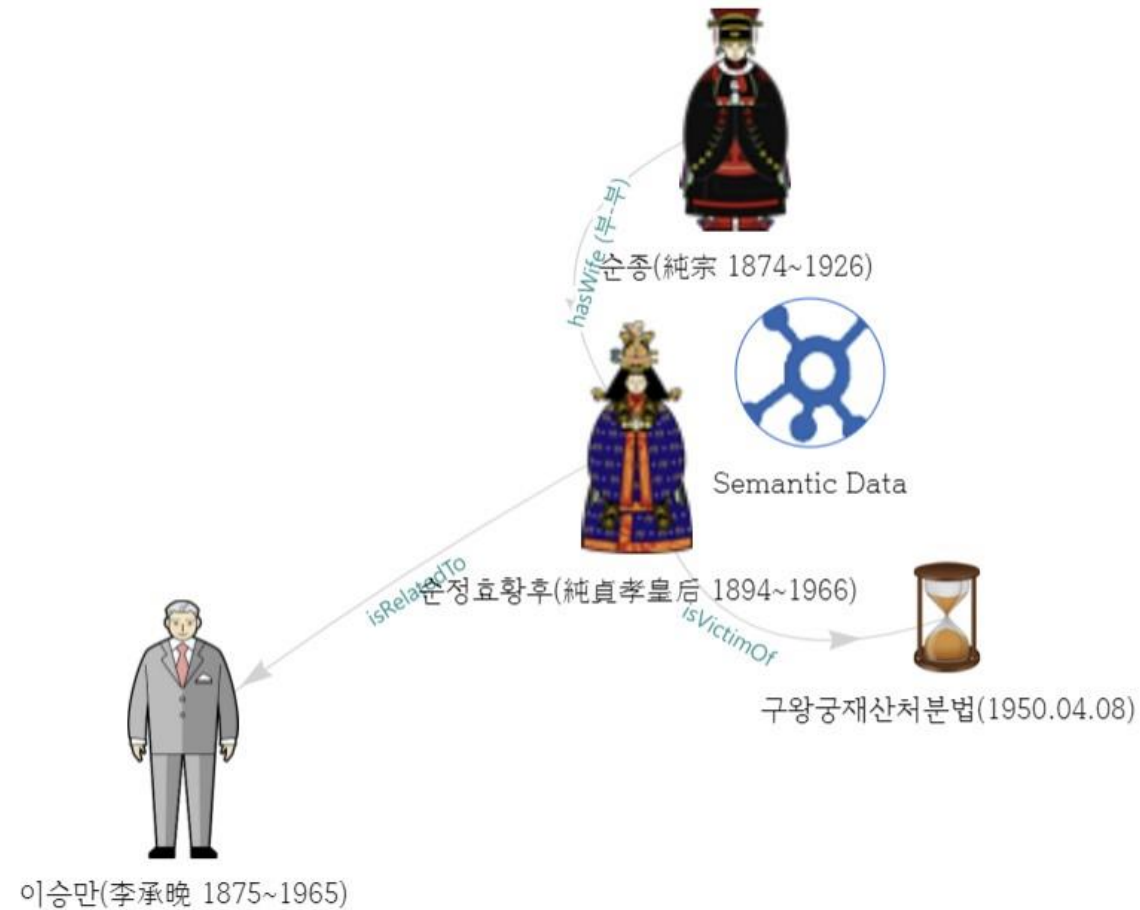
1947년 제헌 헌법에 따라 군주제가 폐지되고 1950년 4월 8일 <구왕궁재산처분법> 시행에 따라 중요한 궁전의 건물과 대지가 국가 소유가 되면서 윤황후는 낙선재를 지키기 위해 이승만 정부와 외로운 투쟁을 해야만 했다. 1950년 9월 29일, 이승만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순정효황후 역시 다시 창덕궁 낙선재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승만은 '창덕궁은 국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수인재(修仁齋)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낙선재를 되찾기 위한 순정효황후 (純貞孝皇后) 윤비(尹妃)의 투쟁



이후 윤비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뒤에야 다시 낙선재로 돌아올 수 있었다. 4.19가 일어나기 몇 달 전, 구 황실 재산관리 사무총국장 오재경이 정릉으로 윤비를 찾아왔고, 5월 4일에 허정(許政) 내각수반(內閣首班)의 허가를 얻은 오재경 국장이 윤비와 함께 창덕궁으로 돌아옴으로써 6.25 이후 10년 만에 윤비는 낙선재로 올 수 있었다. 지금은 전소되어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당시 오재경 국장이 작성했던 구황실 재산목록에 의하면 구황실의 동산과 임야, 토지 등 막대한 부동산이 권력가들의 손에 다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낙선재에서 노년을 보내던 윤비는 1966년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다.

STORY NETWORK GRAPH



영친왕 이은(李垕)과 이방자(李方子) 여사의 정략결혼



고종의 7남이자 순종의 동생인 영친왕 이은(李垕)은 11세(1907)의 나이에 일본에 인질로 끌려가 23세(1920)에 일본 황족의 딸이었던 이방자(李方子) 여사와 결혼을 하였다. 이방자 여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결혼은 일본의 군벌들이 정한 일로, 이방자 여사가 아이를 못 낳을 체질이라 하여 한·일 융화라는 미명 아래 조선 왕가를 절손시키자는 속셈이 작용하였다고 한다.

영친왕 이은(李垕)과 이방자(李方子) 여사의 정략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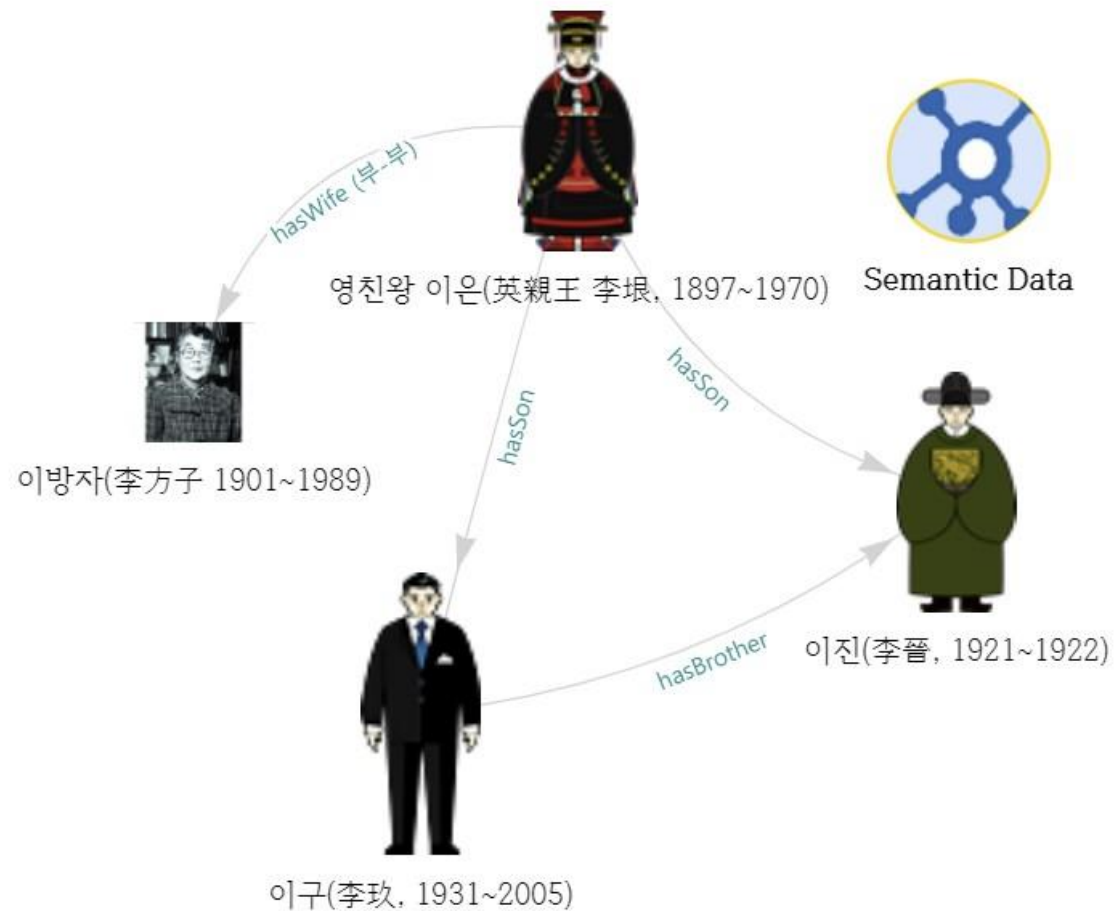
11세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외로운 타국 생활을 이어나 갔던 영친왕의 회한과 고독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바로 영친왕이 늘 방에 두고 보았다고 전하는 낙선재(樂善齋)의 조약돌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생각시들과 나무칼을 가지고 낙선재(樂善齋)에서 놀고 있던 어린 영친왕은 갑자기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손에 이끌려 일본으로 오게 된다. 이후 영친왕은 부모와 형제, 궁녀들, 뛰놀던 궁궐이 너무 그리워 밤마다 남몰래 울었고, 고종 황제께 낙선재 뜰에 있는 조약돌을 몇 개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낸다. 이에 조선 궁중에서 마침 일본에 가는 사람이 있어 조약돌을 보냈는데 영친왕은 낙선재(樂善齋)에서 가져온 이 조약돌을 자신의 방에 두고 바라보면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랬다고 한다.

영친왕 이은(李垠)과 이방자(李方子) 여사의 정략결혼



1921년 8월 18일, 왕자 이진(李晉)이 태어났으나 1922년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송인원(崇仁園)에 묻히고, 이후 10년 만인 1931년 12월, 두 번째 왕자 이구(李玖)가 태어난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영친왕 이은의 귀국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3년 11월 22일이 되어서야 고국 땅을 밟게 되었지만 이미 그는 실언증에다 기억상실에 걸린 상태였다. 그 후 그는 7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1970년 5월 1일 눈을 감게 된다.

STORY NETWORK GRAPH



MIT를 졸업한 수재 이구(李玖), 줄리아 멀록(JULIA MULLOCK)과 인연을 맺다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2남으로 태어난 이구(李玖)는 조선의 마지막 황태손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자, 영친왕 부부는 미군정 측에 재일 한국인으로 등록한다. 1947년 10월 18일, 왕족들은 신적강하(臣籍降下)를 당하게 되고 이로써 이은과 이방자라는 평민이 된 영친왕 부부는 일본 정부와의 모든 관계가 끊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승만 정부에게도 냉대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했던 이구(李玖)는 17세부터 미국인 상점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한다. 미군 기관지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즈(Stars and Stripes) 신문에서 「한국의 전 황태자 이왕의 아들이 미국인 상점의 점원이 되었다」고 사진과 함께 커다랗게 보도하기도 하였다.

MIT를 졸업한 수재 이구(李玖), 줄리아 멀록(JULIA MULLOCK)과 인연을 맺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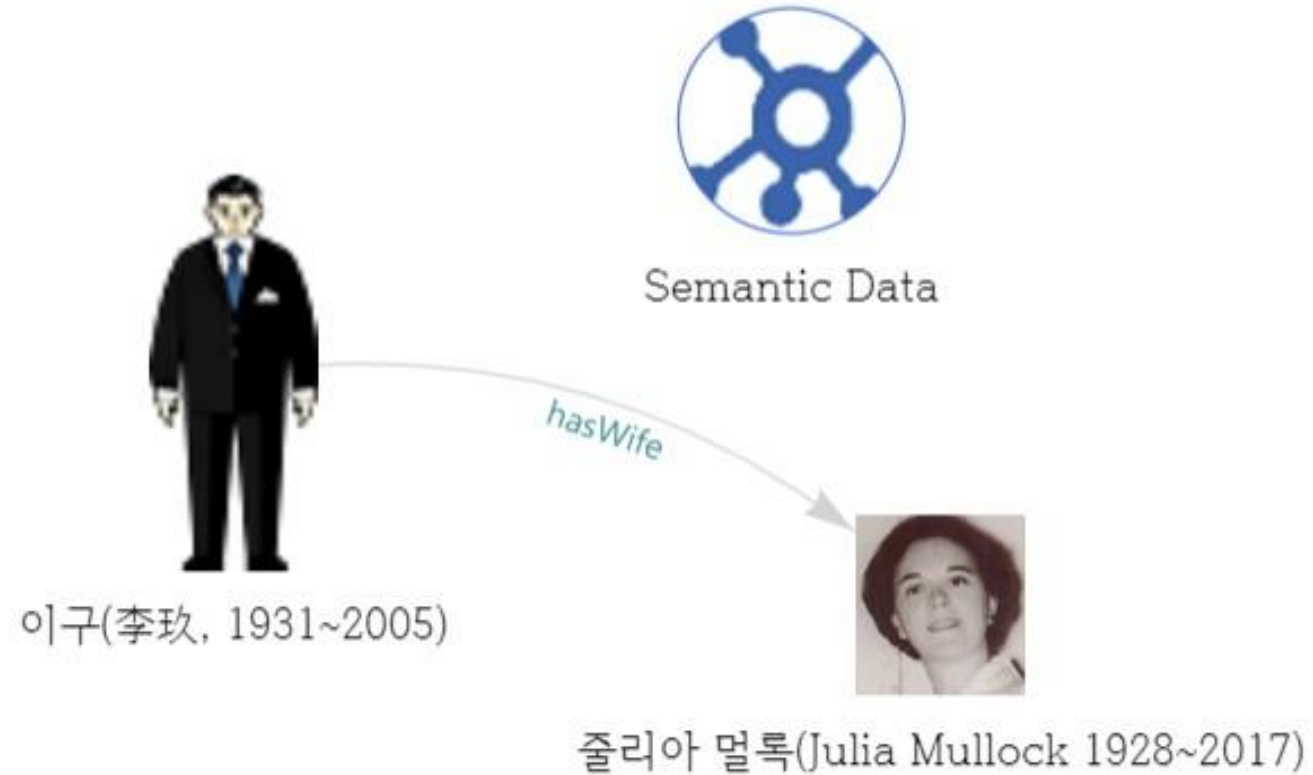
이구(李玖)는 상점 주인 윌리엄 씨의 호의로 미국에 갈 뱃삿을 모으게 되고, 피셔의 주선으로 1950년 8월 3일, 친구인 히로아끼(博明)와 함께 미국 켄터키주 댄빌에 위치한 센트럴 칼리지(Centre College)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1953년 9월, 이구는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건축과에 입학하여 뉴욕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1958년 영친왕 부부는 아들 이구를 보기 위해 뉴욕으로 잠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때 이구는 독일계 미국인을 양친으로 모신 중산층 가정의 줄리아 멀록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 대학을 졸업한 뒤, 이구는 뉴욕 아이엠페이(IMPEI) 건축사무소에 입사하고 1959년 10월 25일, 뉴욕에서 줄리아 멀록과 결혼식을 올린다.

MIT를 졸업한 수재 이구(李玖), 줄리아 멀록(JULIA MULLOCK)과 인연을 맺다



1963년 6월 15일, 이구와 줄리아 멀록은 최초로 모국인 한국 땅을 밟게 되고, 황실 친족과 정부 관계 인사, 종묘 참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5일 만에 동경(東京)으로 돌아온다. 이후 1963년 11월 22일, 영친왕 이은과 이방자 여사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자 이구 부부도 한국으로 와서 지내게 된다. 그러나 조국으로 돌아온 이상 이구(李玖)에게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종손을 이어야 한다는 의무가 강요되기 시작했고, 건설부의 지원을 받아 속리산 국립공원을 건설하고, 명휘원도 설계하였으나 이구 부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갔다. 이후 1979년, 이구가 회장을 맡고 있던 신한항공(1972년 설립)이 부도를 내고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이구는 좌절과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1982년에는 줄리아 멀록과 정식 이혼 절차를 밟는다. 2005년 7월 16일, 이구는 도쿄 아카사카 프린스호텔에서 세상을 떠난다.

STORY NETWORK GRAPH



덕혜옹주(德惠翁主), 낙선재에서 보낸 회한의 27년



덕혜옹주는 고종은 뒤늦게 얻게 된 고명딸로 어머니 양씨(梁氏)는 상궁 출신이다. 고종은 늦둥이 덕혜옹주를 위해 덕수궁에 황실 유치원을 특별히 설립하고 바로 앞의 거리인데도 사인교에 태워 유모를 딸려 보냈으며 수시로 유치원에 들러 옹주가 노는 것을 보면서 애정을 쏟았다고 한다. 고종은 영친왕처럼 덕혜옹주도 일본에 인질로 끌려가 정략결혼의 희생양이 될까 몹시 근심하였고, 이에 청음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이자 시종 김황진의 조카인 김장한(金章漢)과 극비리에 혼사를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김황진은 경무 총감부로 끌려가 자취를 감추었고 덕혜옹주의 혼사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덕혜옹주(德惠翁主), 낙선재에서 보낸 회한의 27년



덕혜옹주가 일출 국민학교 5학년 때인 1925년 정월, 이 왕직 차관(李王職次官)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郎)가 순종 황제에게 덕혜옹주의 일본행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이 때 창덕궁은 개방되어 동물원이 되어있었고 광화문 자리에는 경복궁 근정전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조선 총독부의 석조 건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므로 순종은 한 나라의 황제가 아닌, 동물원으로 개방되어 있는 고궁이나 돌보는 주인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덕혜옹주는 1925년 3월 25일, 서울을 출발하여 3월 30일 동경역에 도착한다. 이방자 여사의 회고에 의하면 이 때 덕혜옹주의 얼굴은 총명한 눈매가 피로에 지친 듯 흐려져 있고 얼굴도 무척 수척해져 있었다고 한다.

덕혜옹주(德惠翁主), 낙선재에서 보낸 회한의 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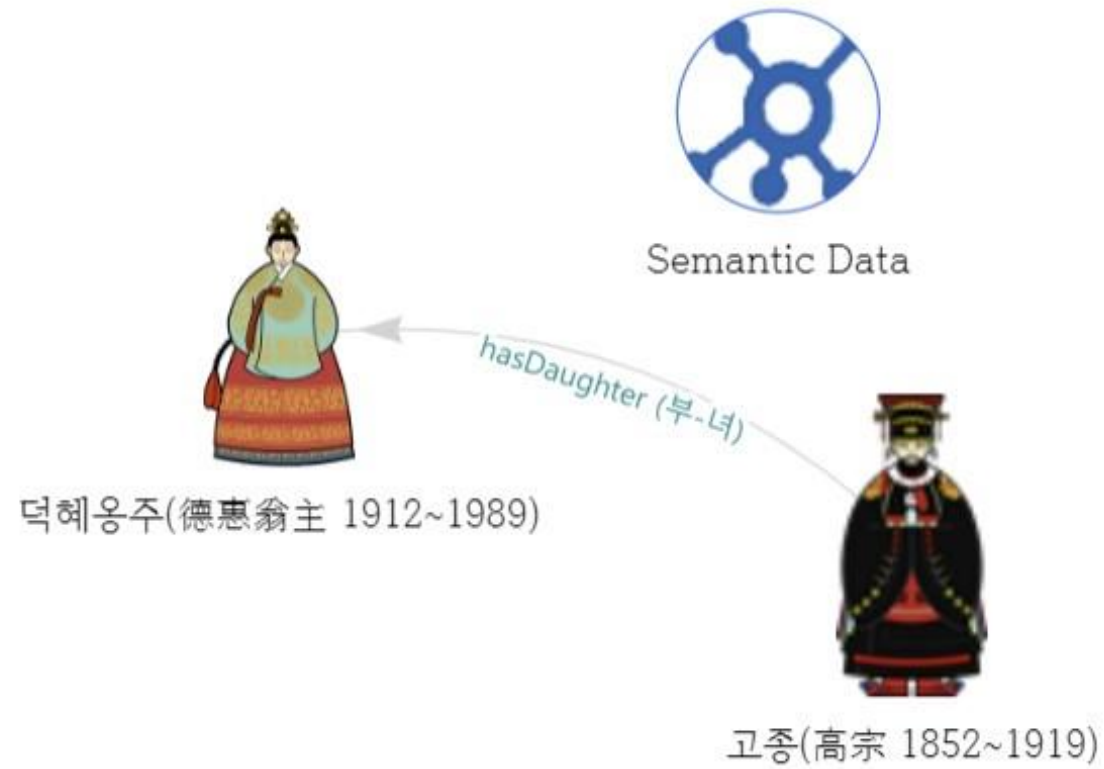
이후 1929년 5월 30일, 덕혜옹주의 생모 양귀인(梁貴人)이 별세한다. 이 때, 덕혜옹주는 불과 17세였는데 모친의 장례식에 다녀온 이후 덕혜옹주는 한밤중에 정원에서 거니는 등 몽유병 증세와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마침내 조발성치매증(早發性痴症) 진단을 받게 된 덕혜옹주는 날로 증세가 악화되었지만 1931년, 5월 8일 덕혜옹주는 대마도 백작의 아들인 쇼 다케유키(宗武志)와 결혼식을 올린다. 이듬해 딸을 낳았지만 이즈음 조울증과 우울증, 조현병이 악화되어 1946년 마쓰자와 도립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입원이 장기화되자 다케유키는 영친왕 부부와의 합의를 통해 1955년 덕혜옹주와 이혼하고, 1956년에 딸이 실종되는 불행을 겪게 된 덕혜옹주의 정신적 병환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덕혜옹주(德惠翁主), 낙선재에서 보낸 회한의 27년



1962년 6월 16일, 이방자 여사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십수년이나 동경의 마쓰사와 정신병원에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 있던 덕혜옹주를 귀국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이에 덕혜옹주는 1962년 1월 16일, 박찬주 여사와 제2공자 종(宗)의 부축을 받으며 귀국 절차를 밟게 된다. 1962년 2월 8일 덕혜옹주는 '이덕혜'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고, 3월 28일에 국가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덕혜옹주의 생계비 지급을 위해 <구황실재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968년 가을 병세가 호전되어 창덕궁 수강재(壽康齋)로 옮겨 기거하다가 1989년 4월 21일 세상을 떠난다.

STORY NETWORK GRAPH



황실일가와 구왕궁재산처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제정개정이유 | 연혁 | 신구법비교 | 법령체계도 | 법령비교

조문선택 | 법령주소복사 | 화면내검색

판례 | 연혁 | 위임행정규칙 | 규제 | 생활법령

구왕궁재산처분법

[시행 1950. 4. 8.] [법률 제119호, 1950. 4. 8., 제정]

제1조 구왕궁재산은 국유로 한다.
본법에서 구왕궁재산이라함은 구한국황실 또는 의친왕궁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 관리한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을 지칭한다.

제2조 구왕궁재산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로써 존치한다.

1. 중요한 궁전의 건물과 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기념품 또는 문적
3. 기타영구보존을 요하는것

전항 각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4조 구왕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한 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에 규정된 재산중에서 왕족에게 양여할 수 있다.
구왕궁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에 필요한 재산은 양여한다.

제5조 구왕궁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감독하에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일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6조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국유재산관리기관이 장리한다.

제7조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의 직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황실일가와 구왕궁재산처분법



1963년도 구황실 재산관리 특별 회계예비비 지출

		1963년도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이은씨 영식부부 한국방문경비)(제55회)	
11월 22일	영친왕 이은, 56년 만에 귀국	이은씨 재산 양여신청에 대한 처리	
		영친왕(이은) 귀국 3	

황실일가와 구왕궁재산처분법

자산관리공사-숙명여대, '황실 交付 무상사용 승낙서' 실효성 여부 놓고 소송

자산관리공사가 숙명여대와 70억원대의 변상금을 놓고 소송 중이다. 이유는 '황실(皇室) 재산의 사용권' 문제다. 자산관리공사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7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대한제국 당시 황실 재산 관리기관인 이왕직(李王職)이 1938년 교부한 무상사용승낙서를 근거로 들어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1992년 용산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해 무상사용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이후에는 무상사용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3년 1월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차례에 걸쳐 양측 주장과 변론을 청취한 상태다.(월간조선, 2013. 02.)

황실일가와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사무국장
오재경(대한민국 제12대 공보부 장관)

1960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당시 대한여행사 이사장이던 오재경을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으로 임명한다. 오재경은 문교부 국장으로 있던 이창석을 데려다가 옛 황실의 재산 관련 서류를 꼼꼼히 모아 조사에 돌입하려 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 뿐만 아니라, 1960년 6월 6일 밤, 서류를 쌓아둔 창덕궁 내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이 불에 타 전소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의 전모를 파악할 단서마저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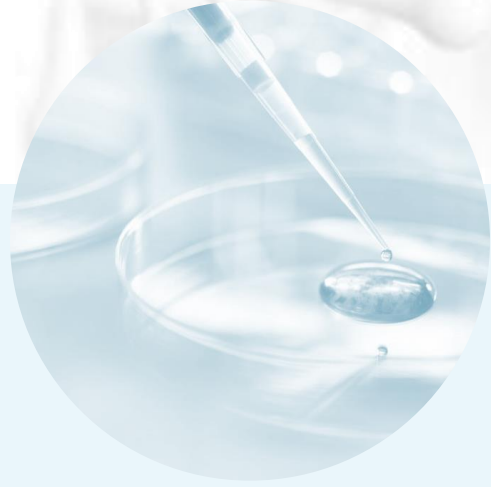
창덕궁의 낙선재, 그곳에 깃든 황실 사람들의 숨결과 이야기

정조에게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숨결이 남아있던 장소

헌종에게는 사랑의 온기가 자리했던 공간

광복 이후, 황실 사람들의 애환과 사연이 담겨있는 낙선재





감사합니다.

